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지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기 정착 위한

제도 이해 및 적용 방법 등 담당교원 연수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는 최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법안(2019년 8월 20일 공포, 9월 1일 시행)'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다. 4가지 조건은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

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는 이 제도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자체해결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2020년 3월



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자체해결제 및 심의위 운영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조병현 장학사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학교폭력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담양공공도서관, 독서의 달 맞아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 마련

담양공공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풍성한 독서진흥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9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독후 활동과 평생교육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운영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석의 유래와 송편 빚기 체험을 해보는 '추석의 유래와 송편 빚기 체험'과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한 '나만의 천연화장품 만들기'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배우는 '새침이와 달렁이' 인형극이 9월 26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2회 상연된다.

이와 함께 독서의 달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갱신한 이용자들에게 상품을 드리는 '이제 책이유미용중 하나로!', 대출이 정지된 회원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연체자 구제 이벤트', 주말 자료실 대출자를 대상으로 독서명인이 담긴 포춘쿠키를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하였다.

김중성 관장은 "9월은 도서관 안팎에 빛나는 나만의 송편달리기와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한 '나만의 천연화장품 만들기'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든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공공도서관 홈페이지(dylib.jne.go.kr)를 참고하거나 종합자료실 ☎ 383-7437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과학동아리, 꿈과 노력 알리다

전남도 학생과 학담구울림픽 과학동아리발표대회

전남도과학교육원은 최근 교육원에서 도내 초·중·고등학생 68팀(학생 131명, 교원 68명)이 참여한 '2019년 전라남도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를 실시하였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는 과학을 통해 익힌 지식을 자기 주도적 탐구를 통해 실제 생활에 응용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과학과 인접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의 성격상 연구 중심이 아닌 순수 동아리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당해의 3월부터 8월까지의 활동을 발표한다.

올해 대회에는 초등학교 20팀, 중학교 17팀, 고등학교 31팀이 참가하였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789명(초등학교 185명, 중학교 161명, 고등학교 443명) 학생들의 탐구 및 체험활동 내용이 펼쳐졌다. 학생들과 지도교원들의 노력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담심사를 거치며, 보고서와 달성도, 활동내용 및 과정(창의성, 참여도, 적용성), 표현력을 세부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가 다른 대회와 달리 독특한 점은 심사장에 학생과 지도교원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다. 발표하는 학생 옆을 들으며 지켜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존재, 항상 처음에 도전하며 성장하는 학생들 옆에

서 안내자와 지지자의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학생이 겪은 모든 과정은 교육이며, 그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도 성장한다. 이번 대회에는 신규 교사의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가 빛나는 학교도 있었지만, 신규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을 돕는 학생들의 모습이 주변을 미소 짓게 했다. 또한 대회에 참여한 지도교원은 올해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벌써부터 내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전남도과학교육원 김경미 원장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며,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들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는 대회이기 전에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재능 펼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교육활동의 공간이며, 선생님들에게는 서로의 교육 철학을 나누는 장이다."

전남도과학교육원은 "앞으로도 학교교육과 선생님의 발전, 그리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계속 변화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참가팀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결과는 오는 9월 2일 발표 예정.

순천대 인물학술원 공동 콜로키엄 개최



순천대학교 인물학술원은 최근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와 '전쟁, 몸,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건국대에서 공동 콜로키엄

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말론과 유토피아(순천대 강성호 인문학술원장, △전쟁과 강한 육체, 그리고 남성적 공동체(건국대 김중감 교수), △인공지능, 촉박인가 재앙인가?: 공동체의 미래(경희대 김재인 교수)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정인경(경희대 비교문화연

구소), 임송자(순천대 인물학술원), 윤지영(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순천대 인물학술원과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간 그리고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순천대 인물학술원과 건국대 몸문화연구소는 2018년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술회의 공동 개최 및 연구 협력, ▲출판, 연구 결과물의 상호 교환, ▲학술교육 정보 및 자료 교환, ▲공동 연구를 위한 연구자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

기로 합의했다.

한편, 순천대학교 인물학술원은 2017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의 중첩된 연쇄과정과 전쟁문화 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남 동부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건국대 몸문화연구소도 2017에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었으며, 몸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는 2018년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비교연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환경보호제도·용역계약 등 전문가 초청 특강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2~23일 영광 힐링컨벤션타운에서 교육지원청

보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보건 업무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보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모색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권진욱 팀장은 교육환경보호제도 변화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주요 현황, 주요 질의회신과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산이서초등학교 오민경 행정실장은 '사례로 배우는 용역계약'이라는 주제로 계약방법 및 행정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오 실장은 학교보건 사업 가운데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및 교직원 업무경감 일환으로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수 참가자들은 교육지원청별 추진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

교 보건행정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교양 프로그램 체험하며 그동안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체육건강과 김성철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학교보건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